

# 고흥군, '2026 고흥 어린이날 큰잔치' 안전 점검 실시

## 어린이날 행사 안전,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빈틈없이



고흥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행사장 안전 점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고흥 어린이날 큰잔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일 행사장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흥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해 소방·시설·교통·전기·안전 등 5개 분야를 꼼꼼히 확인했다.

합동점검반은 ▲다수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구조·구급 통로 확보 여부 ▲행사장 내 교통통제 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 적정성 ▲무대 및 부대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관람객이 대부분이 어린이인 점을 고려해 미아 발생 예방 대책, 안전 안내 체계,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행사장 외부 에어바운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강중수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도예가 생활차도구전' 개막

보성군은 지난 1일 한국차박물관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특별전인 '보성 도예가의 생활차도구전'이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6월 14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보성의 차 문화와 지역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인다. '일상으로 들어온 보성 찻그릇의 멋'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공예품을 넘어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예술로서 찻그릇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조명한다. 전시는 지역 도예가들의 정성과 손길이 담긴 18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참여 작가로는 이학수, 박노연, 김기찬, 박익주, 이정운, 최진훈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각 작가는 보성 찻그릇의 실용성과 미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보성 차와 지역 예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자리로, 축제 기간 다양한 차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강중수 기자

"또 대박 터졌다, 해남공룡대축제" 14만명 넘게 찾아

해남공룡대축제가 전국 최고의 어린이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해남공룡박물관에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14만 4,000여명(5일 기준)이 방문, 지난해 13만여명 방문에 이어 2년 연속 대흥행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인기축제로 성장했다.

첫날 4만 7,000여명의 구름인파가 몰린 축제장은 어린이날인 5일 또다시 4만명 넘게 방문하면서 식지 않는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군은 비가 내린 3일과 평일인 4일에도 정상적으로 축제를 운영해 멀리서 해남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특히 공룡대축제는 공룡 테마의 주 관심층인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족형 축제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안전하고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중안점을 두었다.

/윤보현 기자

진도군, '제10회 진도 꽃게 축제' 성황리 종료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0회 진도 꽃게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꽃게 깜짝 경매 ▲꽃게 낚시 놀이터 ▲꽃게 춤 따라 하기 행사(꽃게 댄스 챌린지) ▲꽃게 노래자랑 등 참여 행사와 더불어 ▲폼바 공연 ▲난타 공연 ▲유명 가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어민 모두가 합심하여 꽃게 가격을 기존 판매가보다 낮추고, 주변 식당에서도 꽃게 요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값싸고 품질 좋은 꽃게를 제공해 많은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진도군에서는 지난해 1,260톤의 꽃게가 생산됐고, 230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하는 등 전라남도 꽃게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꽃게 주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중동 위기 속 해외바이어 상담회로 수출길 확장

장흥군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 5,000만 달러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상담회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개국 11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해 지역 업체들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장흥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향후 마케팅 영상, 사진, 패키징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두연 기자

#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2026.5.7 열리는 바다 식목일 기념식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5월 7일, 푸른 바다가 살아 숨쉬는 청정 해양의 고장 전남 완도군에서 법정기념일인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기념행사는 완도군, 해양수산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며, 5월 7일 오전 10시 30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바다 식목일'은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으로 황폐해져 가는 바닷속 생태계를 되살리고 해양 생물의 터전인 바다숲의 소중함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김, 미역, 다시마 등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산지이며, 바다숲 조성 등 바다 식목일의 취지를 실천해온 완도군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

기념행사에는 관계 기관 관계자

와 주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기념사,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다숲 네이밍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운영된다.

기념행사와 체험 부스에는 완도수산고등학교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바다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가 완도에서 열리는 것은 완도 바다가 그만큼 가치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완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